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보리떡 한 덩어리      성경: 사사기 7장 9-18절  
 (Tag:기드온,보리떡,하나님의역사개입,일하시는하나님,구약성경,사사기 )

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리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리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일으키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16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니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삿7:9-18)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  
께 도움을 청하고 그 힘을 믿고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점을 잘 계시하고 있다.

기드온은 지나치리만큼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소명을 받아들일때  
도 땀을 많이 들였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이다.

가뜩이나 소심한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 군사를 이끌어야 하는데, 하  
나님은 자원하여 모인 군대를 거의 모두 흩어 보내셨다. 하나님은 기  
드온을 멘탈 붕괴 상태로 몰고 가셨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전략은 게릴라전이었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많은 군사를 이동하는 것  
은 게릴라전에 걸맞지 않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300여명의 군사들만 남긴채 모두 돌려  
보내고 말았다. 300명으로 몇만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고민에 빠진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빨리 스스  
로 정탐을 가라는 명령이었다. 무척이나 생각해 주는 듯이 너 혼자  
가면 무서울터이니 부하를 한명 데려가라신다. (한명만...)

아무튼 몰래 정탐을 갔는데 숨어서 보리떡 꿈 이야기를 듣는다. 보  
리떡 이야기가 무슨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도 아니다. 큰 떡 하나가 와서 텐트를 무너뜨렸다는 정말로 개꿈  
같은 보리떡꿈이다.(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찮은 꿈을 보리떡꿈이라고  
할지 모른다.)

기드온이나 그 꿈 이야기를 같이 엿들은 부하도 하찮은 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꿈을 꾸는 동료 미디안 사람이 해몽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보리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데, 기드온이 미디안의 모든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해석이었다.

꿈도 3류 꿈인데, 해석도 3류해석이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보리떡을 어떻게 기드온의 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임이 여기에서 증명된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론이 도출된다. 그리고 그 결론이 가능하게 된 재료들은 전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는 용기가 불끈 솟아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용기가 솟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의 힘을 빼는 말만 계속하셨다.

영똥하게도 기드온에게 용기를 준 말은 적군의 영터리 보리떡꿈 해석이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두 미디안 사람에게 각기 다른 꿈을 꾸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기드온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 해석을 듣게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경험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꿈속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된다. 사람의 꿈을 통해 전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는 곧 가서 특공작전을 명한다. 그리고 적군이 채번하는 어수선한 순간을 이용하여 교란작전을 실행에 옮긴다.

채번하는 순간은 어수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뜻 잠에서 깨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순간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슷한 꿈을 꾸게하셨을 것이다. 아마 꿈속에서 기드온의 군대가 급습하는 꿈을 꾸게 하셨으리라. 그래서 순간 꿈결에서 자신의 칼과 창을

움켜쥐었을 것이다.

그러는 찰라에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며 ‘여호와 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들은 꿈결이 아니라 정말 기드온이 군대를 몰고 야간침략을 감행한 것으로 믿게 되었고, 각기 칼과 창으로 자기들끼리 닥치는대로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들 모두에게 동료의 칼은 순간 기드온의 칼이 되어버렸다.

300명의 기드온 군사들은 소리지르기, 횃불로 교란하기, 나팔을 불어대기만 열심히 하였다.

전쟁에서는 전략이 중요하다. 전략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생각에는 군사의 숫자, 군병들의 사기, 전쟁물자, 지리, 장수의 판단력, 철저한 군인정신, 빠르고 정확한 명령계통, 훈련 등등 전쟁에는 실로 엄청난 요인들이 많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지도 말고, 연습도 하지 말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패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의 전략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물론 전략만 있고 전쟁 준비는 없어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스위스는 철저한 전쟁 준비국가이지만, 결코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철저한 전쟁 준비국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이제는 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이다. 아직 적과 대치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칼을 쟁기로 만든다고 해서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

비록 내가 보리떡 같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략이 함께 한다면 그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자!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